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멸망에서 구원으로 (은 3:9-10)

From Destruction to Salvation (Jon. 3:9-10)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품으신 뜻은 변함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박노철 목사

하나님의 뜻에는 주권적인 뜻(The Sovereign Will of God)과 허락하신 뜻(The Allowable Will of God)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 성령의 감동과 역사,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나도록 하신 뜻이 있는데 이것이 허락하신 뜻입니다 (신 28장).

One of the most unbelievable things among all the unbelievable things in the world is the mind of a person. However, God is eternal without change. Once God decides something in His mind, His will never changes and it will surely come to pass. However, we see in the Bible that the content of God's will sometimes seems to change in certain cases.

Under the umbrella of God's will, there is 'the sovereign will of God', and then there is 'the allowable will of God'. God's creation, the accomplishment of His salvation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spiritual emotion and work, are all under 'the sovereign will of God,' which never changes. On the other hand, God creates a certain situation and, according to what we do, He has great ambition that the result will turn out differently. That is what we call 'the Allowable Will of God' (ex. Deuteronomy 28).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므로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God determined to despise the Ninevites according to their worst evil. God's will towards the Ninevites was clear. However, these Ninevites, who had no possibility of seeing a different outcome, repented in the day of Jonah's message and turned to the Lord. Therefore, God changed his will and didn't destroy the Ninevites.

니느웨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교만한지,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미움과 같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중재자, 곧 도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도자가 있어야 하며, 회개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This aspect of the Ninevites is similar to us. How greedy and arrogant we are! How many fruits of jealousy, avarice, and hatred do we have! Even before we reach these sins on the list, our biggest sins begin with negligence and laziness of spirit. In order to change God's will, there must be an arbitrator - an exclusive agent, a gospel preacher - and there must be clear evidence of confession.

요나는 개인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만약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There is an arbitrator for us, who is our Lord Jesus Christ. He not only died for us, but he was also resurrected, and he ascended into heaven. Even now He intercedes for us. Today we enjoy peace in the grace of God. Even at this moment, there is grace in Jesus Christ, who intercedes for us at the right hand of God's throne.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신 것은 저들이 회개의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강포와 악한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Jonah did not know the Ninevites personally. But he knew that they were one of Israel's sworn enemies. Therefore, if Jonah did not go to Nineveh to preach the gospel, the result would be that all of the Ninevites would be annihilat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God looks at the center of our mind. The reason why God did not destroy the Ninevites is that they prayed a prayer of confession. He spared them, because, by going a step further, they turned back from their evil ways and violence.

하나님의 재앙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소망과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며 또한 많은 이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not any different from the Ninevites. We are human beings who can do nothing but confess that we are the worst of sinners, just like the Apostle Paul. However, we can come before God, because Jesus Christ intercedes for us forever.

Now we must intercede for others, becoming a preacher of the gospel, and bearing the fruit of their confession.

In order to turn back the calamity of God's will, you must fully receive the grace, love, compassion, desire, and blessings that come from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who become a passage of salvation for many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1 홍해 작전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 기도와 부흥 - 6월6일(월)-25일(토) 새벽5시, 본당

2011년 홍해작전이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6월6일(월)부터 25일(토)까지 새벽5시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 6:4-9, 사 40:27-31)이며, 기도와 부흥을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기도로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조국의 평화, 한국교회와 서울교회의 비전,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말씀과 기도 운동"이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번 홍해작전의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홍해 작전 기도 제목

- 1. 우리 앞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 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배의 부흥과 다락방사역을 통해날마다 성장하는 일터와 복된 가정,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4.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주님!**
복음에 빛진 자로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 되게 하시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5. 우리에게 다음세대를 맡겨주시는 주님!**
서울교회가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격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하여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옵소서.
- 6.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요함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어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사명 감당할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된 사업을 위해 마음껏 쓰임 받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고침 받게 하옵소서.
-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며, 의와 평강의 나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

(문2)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내적 증거들이 있습니까?

(답) : 비평주의자들에 의하면 모세 오경은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주전 9세기에 시작하여 주전 445년 즉 에스라가 장막절에 콘소리로 읽은 제사법전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스라 시대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종합 편집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경을 기록한 이는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이어야 합니다.

1) 출애굽기에 언급된 기온이나 기후는 팔레스타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애굽의 것입니다. 우박의 재앙과 연결된 곡물들이 애굽의 것들입니다.(출 9:31-32)

2)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나타난 나무나 동물들은 애굽 또는 시나이반도의 것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성결한 동물과 불결한 짐승의 나열된 것들은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는 것들입니다.(레 11:16, 신 14:5)

3)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지형보다 애굽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창세기 13:10에 요단 지역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한 것으로 보아 창세기를 기록한 이가 애굽 땅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민수기 13:22에 언급된 헤브론의 '애굽 소안' 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독자들은 소안이 세워진 연대를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최초의 도시인 헤브론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4)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자주 나오는 광야의 이야깃들 특히 큰 장막에 대한 기사는 팔레스타인에 살던 독자들에게 이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5) 오경에서 찾아지는 애굽인의 이름들이 오경이 애굽을 잘 아는 이의 기록임을 증거해 주는 것들입니다.

6) 자료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견해대로 오경이 주전 9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면 이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한 후가 될 터이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경에는 장차 성전이 세워질 미래의 도시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창 14, 22, 신 12)

7) 주전 850-450년 기간 동안에 만유의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주전 8세기 말)에 67회, 예레미야서(주전 7세기 말-6세기 초)에 83회, 학개서(주전 6세기 말)에 13회, 스가라서(주전 6세기 말-5세기 초)에 14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오경 전체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경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소위 제사법전은 주전8세기 이전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경의 자료설은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8) 오경의 제사법전 부분이 주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작성되었다면 레위기 제도와 다윗 시대부터 소개된 공예배가 오경에서도 자주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 계속>

이종운 원로목사

CTS 스페셜좌담회 방영

26일(목) 오후2시10분 / 28일(토) 새벽2시30분

CTS 기독교TV에서는 5월14일(토)에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마련하여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원로목사), 김경원 목사(서현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감독(성은교회 담임목사),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인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역주 목사(예원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대담은 현재 교계의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목회자가 힘써야 할 덕목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교회의 준비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CTS 스페셜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26일(목) 오후2시10분, 28일(토) 새벽2시30분에 방송된다.

CCM가수 송정미 초청 특별 금요기도회



영혼을 노래하는 전도자, 또는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등으로 평가받고 있는 송정미 찬양 사역자 초청 특별 금요 기도회가 5월20일(금) 오후8시20분에 열린다. 송정미

사모는 연세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였으며, 극동방송 복음 성가대회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송실대 교회음악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찬양 사역을 통해 선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은혜 충만한 송정미 사모 초청 금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열린프로그램 · 성경대학수료자 명단

- **누기복음 (23)** : 김사라 김상태 김수원 김영희3 김옥순 김진희 배홍갑 손용문 원홍범 유경희 유선희 이계홍 이상섭 이상숙 이상호2 이영자8 임광우 장성자1 전정숙 정병무 조영호 최미희1 탁경준
- **마태복음 (23)** : 강석주 권혁만 김영숙 김옥순 김은순 김인영2 김경호 김해수 박영석 박옥 박현영 박희실 송인택 오교식 이상호2 이현수 이홍숙 장성자1 장영순 정갑재 조복자 최광성 최규조
- **룻기 (6)** : 김옥순 김진희 손용문 유선희 정병무 이상호2
- **교사 양성반(31)** : 권소희 김경애2 김금재 김미경3 김민아 김하나 노애리 문남이 송인택 신가현 안병숙 유경은 유선희 윤선에 윤정준 이미영2 이상휴 이홍숙 장윤기 장호현 전은주 정진문 정현구 조성경 최광성 최복희 최옥희 한혜주 현성훈 홍희미 황병서
- **교구일촌 양성반 (16)** : 김정숙8 이선희5 이상숙 이영미3 송행희 장영순 윤석원 예치수 김희옥 이정희4 박혜선1 송지은 장정화 안지영 이선자1 이태정
- **결혼예비학교(6)** : 강민정 남혜림 박경찬 이범우 장윤정 황재진
- **주부대학 (21)** : 김양숙 김진진 박순복 백영자1 송행희 윤미선 이부자 이인숙1 이태정 이현숙3 이홍숙 조미희 조영호 한경선 홍미선1 황선숙1
- **살렘경로대학(43)** : 계상완 공진문 국순옥 권용임 김기순 김덕자 김복녀 김선자 김진에 김자경 김혜경 김화자 류운철 박경희 박영숙 백영자 백영숙 서귀용 송옥희 신계순 신종현 심영숙 양원호 엄정순 유병욱 유병옥 유복달 이민희 이부자 이현숙 이홍숙 이인희 정병무 정예신 정연택 진경자 최관목 최금자 최무순 최창화 최희봉 홍성숙 황성연
- **선교대학 (22)** : 송인관 윤영준 이영기 정철웅1 양정실 권영희 이강진1 장성자1 송미령 장영순 홍건표 박옥 이승언 강나훈 김미경3 최원석 김미성1 김정재 김혜중 소윤경 송행희 전광환
- **교차기 가배 학교 (31)** : 강민규 강예교 공유진 권도영 김민석 김지민 김태환 남지민 노진철 노진희 문유섭 박서준 박인성 박진용 소신우 소하단 손예진 송하영 윤민준 윤준형 윤태빈 이수아 이예담 이윤의 이태민 장유정 정예원 정지성 조민성 조수아 최희준
- **영아성경 (21)** : 고은옥 김경복 김명옥 김진희 박경진 백성경 신현일 신혜시 우미란 유정애 이순화 이유미 임기선 임혜정 정규호 정용근 조동희 자신혜 최수향 토드 마블린
- **구약의 파노라마 (108)** : 고예순 고은옥1 공명배 구희은 권자영 권진수 김경순 김경순4 김경자4 김경진1 김말심 김미숙6 김선희8 김선희9 김철아 김수영2 김순영 김영미15 김영숙10 김영식 김영옥 김은주1 김인아 김인혜1 김재옥1 김정은3 김정재 김지연18 김준경 김필임 김혜선1 김홍주 나은숙 나현주 민영분 박동호 박미경5 박미선4 박순복 박순자 박옥 박이선 박정순1 박희연 백정숙 서영선1 손성실 송미령 송미경 송준순 송현숙1 신은재 안명신 양미경 오정미 오혜경 유병숙1 유효종 유승기 유인순 유정희 윤소영2 윤현미1 윤혜련 이경란2 이경화 이미경4 이민숙 이영수2 이인숙2 이재경 이진민3 이창희 이태정 이희숙 이희영 임송자 임영숙 장미자 장성자1 장영순 장혜숙1 장도림 장효영 전광환 전희미 전현주 정미애 정영실 정혜원2 조명옥1 조윤희 주혜민 지인희 최금숙 최성희3 최세정 최은석 최희봉 허경화 허미옥 허주란 홍성숙 홍정란 홍현숙 황영숙 황재연 황현숙
- **전도학교 (13)** : 김규순 김태영 김태희 나현주 박혜선 유남식 윤현미 이영수 이은미 임선영 제영진 한혜주 황선숙

목회자세미나 특강

젠리 선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편집자 주〉 다음 강의는 지난 5월 9일(월) 제3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마지막 강의로 박노철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것을 발췌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쌓여갈 수 있게는 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방식까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설교, 신학적으로 탄탄한 설교, आरो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설교,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설교, 등등 다 좋지만 정말 위대한 설교란 듣는 성도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신 후에 항상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 “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세미나 특강 중인 박노철 목사

(요 13: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눅 10:37)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 7: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든 설교자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훑어보게는 만들고

는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의 인격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엡 4:13).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교육하는 설교의 최종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딤후 3:16-17). 우리 모두가 정보를 전달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KIMCHI 신학 세미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교회를 섬기고자



박정선 장로 (김치신학세미나 준비위원장)

제20차 KIMCHI 신학 세미나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KIMCHI 세미나의 초청 대상은 방글라데시의 목사님들 이십니다. 김치 신학 세미나는 우리 교회 설립과 더불어 시작 되어 벌써 2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김치 신학 세미나가 권위 있는 세계적 기구인 로잔 위원회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적인 세미나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20년간 정성과 열정으로 이끌어 오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공이십니다. 김치 신학 세미나의 주된 목적은 자국(自國)의 복음화를 책임질 저들(목사님들)로 하여금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하는 힘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세계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청 대상국인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인과 벵갈리 민족어 계통의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로 종교는 무슬림과 힌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많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김치 신학 세미나 준비 위원회에서는 박노철 목사님의 지휘 아래 김재진 목사님과 박진아 목사님께서 업무를 각각 분담하시어 올 2월부터 초청자와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해 주실 교수 초청 등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또한 김치 신학 세미나 준비 위원회에서는 3월부터 매주일 회의를 갖으며 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서 부터의 환영의전, 숙소, 교통, 식사, 통역, 산상 기도회, 다락방 방문, 외부 방문 일정, 민찬 등에 이르기까지 9박10일간 서울에 머무시는 동안 강의 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분과 별로 나누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0차 김치 신학 세미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머리를 맞대고 미비점을 체크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적 갱신 운동을 통한 선교의 비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방글라데시 나라에 복음이 깊숙이 뿌리 내려 꽃 피워지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서울교회의 전 교인이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강유진 선생님께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화창한 봄날 꽃잎이 휘날리는 상쾌한 5월이네요.^^ 매주 주일 유년부실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은혜 넘쳐요. 그리고 선생님과 분방공부를 하는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생일에 책을 선물해 주신 일입니다. 그 책을 집에 와서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꿈과 같은 책이라서 이 책을 벌써 2번이나 읽었습니다.

매 주일 성경말씀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선생님과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유년부 목유진 올림



사랑하는 제자 유진에게

유진아~ 처음 유년부에서 우리 반 친구들 명단을 받았을때 너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

아마도 선생님과 같은 이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 그 후 너무도 성실한 유진을 보면서 유년부 선생님께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매 주 집도 면제 일 일찍 교회 오고, 성경 필사면 필사, 기도생활이면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 율동팀에서 항상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유진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많은 도전을 받아.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너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모범을 보여야 겠다고 말이야. 유진아, 앞으로 유진이가 수많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선생님이 많이 노력할게.

우리 남은 기간 유년부에서 더 신나고 재밌게 잘 보내자! 선생님이 많이 축복하고 사랑해~

유년부 강유진 선생님

스승의 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수정(초등부)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라고 하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매주 일마다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공과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 드려요. 선생님께서는 토요일 밤에 “내일 꼭 교회 와야 돼, 알았지?” 라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교회 가는데 부담도 훨씬 줄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지금 아프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

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서 교회에 오게 해 주시고, 그 친구들이 오면 환영해 주시는 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주일마다 보게 해 주셔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을 축하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초등부 친구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 드려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용서 하셨다.” 라는 말씀만큼이라도 저희 마음 속에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년5부 찬양대회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손태현 집사
(장년5부 교사)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장년5부(부장 최광성 집사)가 5월 22일 주일 오전 10시 603호에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찬양대회를 갖습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신 어르신들의 발표회입니다. 몇몇반은 율동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기간 동안 선의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장년5부의 전도와 부흥을 목표로 청년부가 찬양을 도와주고 장년5부 모든 교사는 어르신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넉넉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찬양대회는 각 반별로 새

가족을 가장 많이 모시고 오는 팀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며 상품도 많이 준비합니다. 특별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3대 이상이 같이 출연하시는 믿음의 계대를 보여주는 가족에게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싱그러운 5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년5부(70세 이상)는 주일 오전10시 603호에서 시작됩니다. 권사님들을 모시고 공부하는 저희 교사들은 배우고 은혜 받는 주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성도님들, 어르신을 모시고 오시면 저희 교사들은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5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16교구 이상호 집사, 12교구 소윤경 집사
- <2독> 12교구 박명석 권사
- <1독> 6교구 김희진 권사 6교구 서영세 권사 7교구 김영례 권사 8교구 김영일 집사 8교구 박정욱 권사 11교구 국산옥 권사 11교구 홍석현 성도 16교구 장양일 집사

수요2부예배(시온찬양대) 오르가니스트 교체

수요2부예배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하던 이순재 선생의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김진형 선생이 임명되었다. 김진형 선생은 충남예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오르간 전공)를 졸업하였다.

제5회 서울교회, 동산교회(청주), 한별교회(청주) 친선 족구대회

5월21일(토) 오전9시~오후1시, 미도공원

서울교회 전도위원회 산하 족구선교회는 5월21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미도공원에서 동산교회(이성득 목사), 한별교회(이용식 목사)와 친선 족구대회를 갖는다.

또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족구선교회에서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족구를 사랑하는 남성도들 누구나 환영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에 모임을 갖는다. 문의는 김광태 집사(011-268-1000), 장창수 집사(010-3796-1193)에게 연락바란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구민영성도(임마누엘찬양대 솔로리스트)의 독창으로 드린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였으며 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쿨 특별상 수상 등 다수의 국제콩쿨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I Virtuosi della Sacra 소속 가수로 있으며 동서대학교, 부산예고, 강원예고등에 출강하고 있다.오늘은 '동행(계현찬 작곡)'등 세 곡을 양혜선성도(청년2부)의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화요정오음악회

5.17(화) 정오, 본당(관람,3층)

· 조인형 / 오르간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
- 영국 Royal College of Music 대학원 졸업 (ARCM, ARCO)
- 연세문화상, Paratt Prize 수상
-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상임이사
- 현,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회음악전공 교수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수석 오르가니스트



동정

- 이종원원로목사는 5월16일(월) 미래한국선교회 모임을 주관한다. 20일(금) 한장총 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 월례회를 주관한다. 20일(금) 한장총 증경대표회장 간담회에 참여한다. 21일(토)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발표회에서 축사를 담당한다.
- 문정훈 목사의 사임에 따라 15교구 지도 황광 목사, 16교구 지도 서명철 목사, 사랑부 지도 한상은 목사, 도서실 지도 장석남 목사, 베드로·뱌뵈 전도회 박광일 목사가 맡는다.
- 특남: 기현군 성도 이영숙 성도(3교구)
- 특녀: 유은철 집사 조현정 성도(5-7다락방)가정, 5월 7일
- 개업: 이준석 집사 정현수 집사(12교구) 『초록향기』 서초2동 1327 서초타운트라펠리스 202호
- 이사: 이승래 집사, 김정희 권사 가정(5-13다락방) 동작구 사당동 432-32
- 주간식당봉사: 제2스대반회(5.15) 제1권사회(5.22)
- 금주의 식사: 최규초 집사 노순례 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되도록
2. 송정미 사모 초청 금요기도회를 통해 찬양의 기쁨과 능력이 임하도록
3. 2011년도 흥해작전과 킷치 세미나가 잘 준비되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4. 방글라데시에 파송되신 조남해 선교사님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 후 8시20분	
새 벽 기도 회	오 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